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음 9월 20일) 제19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깊어가는 가을... 진안 용담호 단풍 절정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는 용담호 호반도로의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고 있다.

7일 진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아름답기가 웅만한 자연 호수에 빠지지 않는 인공호수 용담호 주변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용담호는 사시사철 아름답지만 그 중 최고는 가을이다. 이른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수와 주변의 아름다운 산들이 어우러지는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용담댐은 호남지역 최대 다목적댐. 저수량 8억 1,500만 규모로 소양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전북, 충청권 주민 150만 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댐 건설 과정에서 6개 읍·면 3,300만㎡가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거대한 호수가 진안을 상징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됐다.

호반 곳곳에 수몰된 실형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한 방향의 동산이 조성돼 있다.

댐을 일주하는 64.6km의 도로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민물매운탕 음식점도 쉽게 만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진작가들에게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이다"며 "올 가을 가슴이 탁 트이는 드라이브 코스를 찾는다면 용담호 호반도로가 제격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중 해빙기류

유커에 다시 손짓

<중국인 관광객>

전북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국 금한령 해제 대비 관광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한국관광객 금지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 전담여행사와 인비온드 여행업체 7개사,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한중관계 동향 및 전북도 대응계획,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 및 유관기관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금한령 해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태세 마련을 해야 할 시기를 강조했다.

방법적으로는 홍보의 중요성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알지 못하는 곳은 갈 수 없음을 역설하며 낮은 전북의 인지도를 끊임없는 홍보활동을 통해

▶ 도, 금한령 대비 관광업계 간담회

홍보 중요성에 공감대
"낙수효과 바라보지 말고
어렵더라도 지역만의
자체상품 강화 힘 쏟아야"
도 "시장다변화 등 역점

계속해서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행사 대표 A는 "전북관광을 알리는 유일한 길은 홍보활동 외에는 없다"며 "실제로 10년 전에 해외에서 추진했던 홍보활동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결실을 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태권도, 韓스타일, 힐링, 청정자원, 수학여행, 국악공연, 단풍, 스키 등은 전북이 가진 강점"이라며 "모든 지방이 서울, 경기권 관광객의 낙수효과만 바라보고 있는

데 이래서는 자체 경쟁력을 올릴 수 없으며, 어렵더라도 지역민의 자체상품 강화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말했다.

호텔 관계자는 "중국 광저우에서는 '전라북도'는 몰라도 '전북현대'는 안다"며 "지역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 활용방법을 찾아 킬러콘텐츠로 개발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현대를 활용해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 ACL 경기가 있는 날에는 외국인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중국과 일본의 유소년 축구클럽 유치 등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드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광마케팅 전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고 하면서, "홍보강화, 특수목적상품 개발, 시장다변화에 역점을 두면서 관광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노후, 기초·국민연금으로 커버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
"국민이 주인인 연금될 것"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도 주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사진)은 7일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매월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혹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과 내 노후자금을 제대로 관리해 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잘 지키고 키울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국민연금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아내겠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배제하는제도와 시스템을 탄탄히 만들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것인지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상관관계를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두투누리 등 저소득층 가입지원과 아울러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출산, 실업 크레딧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연계방안,기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의 재구조화에 대해2018년 시행되는 4차 재정재계산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를 걷고 지급하는 단순연금관리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노년, 재부, 건강, 여가 등을 지원하는 노후종합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글로벌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서도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자와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